

환경교사의 양성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 현 덕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I. 서 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의 중요성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¹⁾. 그런데 이러한 교사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환경교사의 양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교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혀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의 내용과 깊이가 같은 것일 수는 없지만, 환경문제를 지적 및 정서적 발달에 차이가 있는 상이한 연령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방법의 개발과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²⁾. 환경과 관련된 과목을 자연계 과목의 일부로만 다루려는 현재의 안이한 방법을 지양하고 인문 및 사회계과목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생물이나 자연 등의 특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계와 한국환경교육학회 등에서 추진해 오던 제 6차 초·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 「환경」과가 선택교과로, 고등학교에 「환경과학」과가 자유교양 선택교과로 개설되었다. 이들 교과는 선택교과이기는 하지만 중등학교 교육에 「환경」과가 정규과목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는 1995년(중학교) 및 1996년(고등학교)에 투입된다. 한국환경교육학회가 중학교

「환경」과의 교육시안을 교육부로부터 위촉받아 개발하여 교육부에서 이를 이미 고시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다듬는 중이다⁽³⁾.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추세로 볼 때 비록 환경 관련 과목이 선택교과 또는 자유교양 선택교과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대학입시에서 환경 관련 문제의 출제가능성의 비중도 커지리라 예상된다. 대학의 교양과목인 「환경학」, 「환경오염」, 「인간과 환경」 등의 과목이 여러 대학에서 최근에 인기과목으로 급부상하여 수강학생의 수가 수백명으로부터 심지어 수천명까지 이르고 있어 기타의 다른 교양과목을 제압하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목의 개발 뿐만 아니라 환경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며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환경교사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관련 과목을 담당할 현직교사들을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우선 「환경교사의 이상형」을 살펴보고, 환경교사의 양성을 위한 「핵심과목의 개발」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 나라의 현행 「환경교사 양성과 대학원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II. 환경교사의 이상형

이상적인 환경인은 환경과 관련이 있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일 뿐만 아니라 환경진반에

(1) 최돈형, 1992, "환경교육의 내실화", 「한국교육의 나아갈 길 21세기를 말하는 교육전략」, 신세호 편(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 172-173.

(2) 이상주, 1992, "성숙한 문화시대의 인간과 교육", 「21세기의 사회, 인간 그리고 교육」(한국교육개발원 창립20주년기념 학술 세미나, 1992년 8월 28일-29일), pp. 74-75.

(3) 한국환경교육학회 회보, 1992, 제5호, p. 2.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론자(generalist)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의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에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극히 용이한 일이지만, 환경교사와 같이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의 주입보다는 환경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문제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기 보다는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론자가 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4).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환경과목을 자연계의 한 과목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입장에서는 일반론자인 환경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바람직한 환경교사의 「이상형」은 환경문제에 대한 좁은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보다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현상은 물론 체계적인 이론을 학생들에게 설득력있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박식한 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교사의 양성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환경교사는 자연계의 생물, 화학, 지리 등을 전공한 교사에 국한시킬 필요없이 인문이나 사회계열을 전공한 교사라도 자기의 전공분야를 기초로 하여 대학원에서 엄선된 핵심과목(core courses)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면, 특정분야의 전공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누구나 유능한 환경교사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5).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환경을 질적으로 저해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파생되는 식량문제, 자원문제, 경제성장과 도시화문제,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건강문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6).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기오염, 물오염, 소음, 고체폐기물과 같은 문제만을 환경문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만족한 해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토의 가용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된 고도성장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및 산업과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점차적으로 단순한 농경사회가 복잡한 산업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해로운 연기를 뿜는 공장의 굴뚝은 경제번영의 주역으로 보여졌으며,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하천이나 강의 능력은 가장 해로운 산업 및 도시폐기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낼 것으로 보았다.

산업의 성장과 번영은 인구의 꾸준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세대가 변함에 따라 더 풍부하고 좋은 제품 및 품목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산업과 농업은 점증하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더 촉진된 비율로 연료와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사용은 폭증했으며 자원추출과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은 물을 요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만 환경의 질은 가속히 훼손되었으며, 기술개발의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산물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종합적이며 다학문적인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공기, 물, 토지 등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매체의 문제로 다루려하지 않고 별개의 상호독립된 매체인양 다루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자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상의 오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인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공기, 물, 토지 등의 환경매체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매체간 접근방법(cross-media approach)(7)을 도입하여 환경을 전체적인 체계(total system)(8)로서 다루는 것이 환경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기와 물오염의 문제를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실례로

(4) cf. 우리교육 편집부, 1992, "학교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방안", 「우리교육」, 92. 6., p. 45.

(5) 환경교사의 특수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원 과정(석사학위)을 현직 교사들이 이수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신현덕, 1989, 「환경문제연구」(서울:동화기술).

(7) Controlling Cross-Media Pollutants, 1984, Washington, D. C. :The Conservation Foundation:New Perspectives on Pollution Control:Cross-Media Problems, 1985,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at Washington, D. C. , November 13, 1984, Washington, D. 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8) Jack G. Beale, 1980, The Manager and the Environment:General Theory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xford:Pergamon, chap. 7.

둘 수 있는데, 공기오염물질과 물오염물질은 그 성분이나 상호작용 및 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공기오염이나 물오염에 대해서는 종합적이며 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기오염물질에는 미립자와 같은 입자상물질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같은 기체인 일차오염물질과 이러한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산출된 산성비나 광화학적 매연과 같은 이차오염물질이 있다. 물오염물질에는 BOD나 COD로 측정되는 산소요구 폐기물, 전염인자, 질소 및 인과 같은 식물영양소, 각종 유기 또는 무기화학물질, 침전물, 열, 방사능물질 등을 들 수 있다(9).

이러한 공기 또는 물오염물질의 종류, 작용, 및 영향 등에 관한 것은 물리, 화학, 생물, 생태학 또는 보건위생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다룬다. 공기오염물질이 차량이나 공장의 연통에서 배출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물오염물질의 저감을 공학적으로 다루는 것 등은 공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오염물질의 배출자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지책의 강구 등은 과학기술적 접근으로서 자연과학의 분야에 속한다.

공기나 물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문제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중심으로하는 제도적인 접근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문제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아무리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인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제정이나 정책입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없다면, 환경오염은 영원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10). 따라서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채택,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오염관련 법규의 위반사범을 처벌함으로써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의 문제를 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학, 행정학, 정책학 등의 사회과학의 학문분야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환경오염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토양침식의 영향은 그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기오염의 피해는 건물과 수확량, 삼림에 대한 피해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발전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오염의 방지와 그 해결도 용자, 세제상의 특혜, 배출부과금, 또는 보조금 등의 각종 경제적인 유도책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이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할 때 점차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11).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제도적 접근은 자연과학적인 과학기술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며, 환경교사의 양성도 이러한 환경문제의 종합적이며 학제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12).

III. 핵심과목의 개발

우리 나라의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원 환경전공 학과들이 교과과정의 채택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갖고는 환경과 관련된 특수분야의 전문지식보다는 환경전반에 걸쳐 개괄적이며 총체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환경교사의 양성에는 부적절하다. 환경교사의 양성을 사범대학에서 행하는 대신 전공분야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현직교사 또는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통하여 양성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 환경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환경문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엄밀하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종합적이며 학제적인 분야이므로 환경교사의 양성대상을 특정 학문분야를 전공한 교사 또는 일반대학 출신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미국의 전문사서의 양성이 입학자격에서 전공분야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이다. 도서관은 어떤 학문분야에도 필요한 기관이므로 전문사서가 되기 위한 엄선된 도서관학 분야의 핵심과목(core courses)만 이수하면 되며, 학부의 전공분야는 특정 분야의 전문사서가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며, 특수도서관의 전문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학 석사학위와 함께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면 좀더 바람직할 것이다(13).

(9) Laurent Hodges, 1979, *Environmental Pollution*, 2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haps. 3, 8.
 (10) 신현덕, 1991,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의 문제점", 「경희행정논총」, 제6권마 제1호, p.32.
 (11) 이정전, 1991, "환경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입법조사월보」, 통권201호, pp.1-9.
 (12) cf. UNESCO의 환경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의 동향 특성 접근방법 등에 관한 총론적인 이론, 학교나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모듈, 그리고 교사가 되기 전에 받는 연수와 교사로서 받는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교육 편집부, 1992, "주요외국의 환경교육동향", 「우리교육」, 92. 6., pp.55-57.
 (13) 미국의 대학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는 도서관학 석사학위 이외에 전공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주제분야 전문가(subject area specialist)로서 우대하고 있다.

환경교사의 양성도 학부의 전공이 자연계 또는 사회계의 어떤 분야이든 간에 전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환경교사를 위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핵심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목은 자연계의 환경 관련 대학원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것이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환경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통일화가 요청되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핵심과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과학기술분야 : 공기오염, 물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및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공학개론」, 「환경오염개론」 등의 과목.

② 경제이론 :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환경이 자본 또는 자원으로 생각되며, 환경문제의 발생도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 상호간의 이익추구의 충돌로 생기는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등의 과목.

③ 법제도 : 환경문제의 법적 규제를 다루고 있는 「환경법론」; 환경전담부서의 조직과 기능, 환경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과 관련이 있는 「환경행정론」, 「환경정책론」; 그리고 사전에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기법과 법제도를 다루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론」

④ 보건위생분야 : 환경문제는 질병이나 기타의 형태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환경위생」, 「산업보건」

⑤ 생태학 : 생물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일반생태학」, 「인간생태학」

⑥ 환경이론 : 환경문제를 환경오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환경오염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문제, 자원문제, 공업화문제, 도시화문제, 생태계파괴문제, 인간의 건강문제 등 좀 더 포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학」, 「환경론」, 「환경문제」

⑦ 환경교육분야 : 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와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의 환경과목의 강의와 같은 학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교육 또는 성인교육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환경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환경교육론」

⑧ 국제 환경문제 : 1992년의 리우회의를 전후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해양오염의 문제들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존 국제 환경문제들을 올바

로 이해하기 위한 「국제환경론」

⑨ 기타분야 :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환경심리학」;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윤리학」; 자연환경의 보호를 중심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문제를 다루는 「자연자원관리」; 환경을 경제개발계획의 일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환경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분야별 핵심과목의 선정은 어느 특정 분야에 비중을 두지 않고 환경교사가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개론과목을 열거한 것이며, 교육목표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변경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세분화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환경법론」의 경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접근의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현행 환경법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의 종류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별개의 강의로 개설하는 것은 「환경법학」과의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에 관한 과학기술적 접근에 있어서도 공기오염, 물오염,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것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각각 독립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환경교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전문교육의 문제점은, 특히 자연계의 「환경학과」 또는 「환경공학과」의 경우 지나친 전공과목의 세분화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좁은 한 국면 예컨대 대기 또는 수질 중에도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이나 등으로 또 다시 세분화되어 공기오염과 물오염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물론 보다 큰 생태계에 있어서의 관련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편협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방대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소위 전문가로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환경전문교육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과학적인 올바른 접근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14).

핵심과목의 선정은 학부에서 환경을 전공하지 않은 현직교사나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환경의 과학기술적, 제도적, 교육적, 윤리적, 국제적인 모든 국면에 걸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핵심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중점적인 교육을 행함으로써, 환경의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specialist)라기 보다는 환경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론자(generalist)를 양성하려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4) 신현덕, 1991, "환경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적 접근", 「환경교육」, 제2권, pp.101-103.

참고로 중학교의 「환경」과와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중학교의 「환경」과

- (1) 환경과 우리
 - (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
 - (나) 환경의 변화
- (2) 환경문제
 - (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 (나) 자원문제
 - (다) 환경문제의 지구적 확산
- (3) 환경보전 활동
 - (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
 - (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

- (1) 환경의 개념
 - (가) 자연환경
 - (나) 인간활동과 환경
- (2) 환경문제와 대책
 - (가) 물 (라) 폐기물
 - (나) 대기 (마) 소음·진동
 - (다) 토양 (바) 방사선
- (3) 환경보전
 - (가) 개인, 가정수준에서의 환경문제와 대책
 - (나) 지역에 따른 환경문제와 대책
 - (다) 국가수준의 환경문제와 대책

IV. 환경교사 양성과 대학원 과정

환경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현재 학부 또는 대학원의 수준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중학교의 「환경」과 및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의 과목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현직 교사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경교사 양성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관련이 있는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는 교육대학원,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환경학과」 또는 「환경공학과」의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교육대학원에서 「환경교육」을 별개의 「교육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관련 학과목의 강의 개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환경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의 「환경학과」나 「환경공학과」의 경우 개설된 대부분의 학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환경의 특정분야를 전공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교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환경교사의 양성이라는 목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환경전문인력의 환경전공학과에서 환경교사의 양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환경행정전공」은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때문에 환경교사의 양성과는 일견 무관한 것 같지만, 개설되어 있는 학과목의 대부분이 위에서 살펴본 핵심과목에 가장 근접해 있다. 비록 학위는 「교육학」 석사학위가 아닐지라도 학위논문은 「환경교육」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다루게 되면 교육대학원의 「교육학」 석사학위와 마찬가지로 연구실적 1점이 추가되며, 환경교육과 관련이 없는 환경행정분야(대부분의 대학원생의 경우에 해당함)를 전공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0.5점이 추가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6).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환경행정전공」이 개설하고 있는 주요 과목을 보면 「환경법」,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경제학」, 「환경영향평가론」, 「환경론」, 「환경지리」 등이며, 이 외에도 「환경공학」, 「환경모니터링」, 「생태학」, 「토지공학」 등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17) 「환경교육」 및 「국제환경문제」 등의 과목을 추가하게 되면 환경교사의 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범대학의 학부수준에서나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수준에서 「환경교육」을 전공분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환경전공학과와 학부나 대학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채택하여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지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중학교의 「환경」과와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의 교과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소위 환경 관련 핵심과목을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 맞도록 엄선하여 교사양성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교사들을

(15) 한국환경교육학회 회보, 1992, 제5호, pp.2-3.

(16) 교육공무원승진규정(11차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제30조 항.

(17) 경희대학교 요람, 1992, p. 369.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단기 연수나 워크숍을 통하여 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체계적으로 현직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효과적인 대체 방법이 될 것이다⁽¹⁸⁾. 그런데 문제는 현직 교사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과목을 공부하고 가르치려는 의욕의 문제이다. 아무리 환경문제가 중요하며 환경과목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환경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이 선호하여 열의를 갖고 대학원에 까지 진학하여 학생들에게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실력과 자질을 기르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환경교사 양성을 위한 어떠한 훌륭한 건의안이나 제안도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환경교육의 미래상은 참으로 암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¹⁹⁾.

V. 결 론

우리 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양성은 사범대학의 학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교사라 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 교육목표와 분야가 뚜렷한 학문분야와는 달리 환경과 같이 어떤 특정 학문분야에 전속시킬 수 없는 교육과정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다루는 경우에도 환경문제의 종합

성과 학제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교육목표와 방법을 개발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안이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대학원 이외의 대학원 과정이 현재로서는 교사양성과 어떠한 직접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현행 대학원 환경전공 과정이 환경교사 양성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자질을 한층 더 높이는 대학원의 환경교육과정은 현재로서는 극히 비판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좀더 커지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가 올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환경교사의 양성은 너무 늦기전에 체계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사의 양성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능력만으로는 현재 역부족이므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차원높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대학원과 연계하여 대학원 수준에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교육학」적인 측면은 물론 「환경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개발하여 현직 교사(또는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18) cf. 남상준, 1992, "환경가치관 교육의 전략", 「교육월보」, 9월호, pp. 40-43

(19) 최돈형 외, 1992, "학교환경교육 내실화방안에 관한 조사", 「교육월보」, 9월호, pp.84-91.